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국민종교 구성비 '불자 감소' 보는 불교계 시각

‘충격...올것이 왔다’ 분위기속 자성 목소리

통계청이 5월 25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분야 분석결과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소위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10년 전인 199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불교의 정체, 개신교의 퇴조, 가톨릭의 대약진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종교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개신교나 가톨릭을 기독교라는 한 묶음으로 보면 갈수록 불교가 외래종교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홍보실 허영엽 신부는 가톨릭의 비약적인 발전 배경을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별 ‘소공동체 운동’에서 찾았다.

허 신부는 “교구자체가 명확하게 확립된 가톨릭은 통·반 단위까지 분당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목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을 겨냥해 사회복지와 대사회적 활

동이 늘면서 가톨릭의 대외적 이미지를 재고하고, 체계적인 인교 시스템으로 신도교육 강화에 나선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불교의 정체 이유가 가톨릭이 갖던 길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분석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일관 스님은 “한마디로 포교를 열심히 안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님은 “중단 내적으로 보면 중단을 ‘본사-말사 간 네트워크’가 안돼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포교를 위해 본사를 두려하려고 해도 본사에 포교에 신이나 인력이 없다”며 열악한 포교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하루빨리 투자 개념을 갖고

조직력을 갖춰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가톨릭에 비해 공동체적 사고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다른 종교는 출생하면 성장해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종교라는 울타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반해, 불교는 그러한 면이 부족한 것 같다”며 “불교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불교는 희생적인 모습도 없고, 신도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없다”고 혹

평했다. 최 교수는 “포교현장에서 만나는 스님들의 위기의식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스님 중심으로만 불교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스님들이 지금보다 더 낮은 곳에서 희생하겠다는 의지와 각성이 없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또 “1998년 국민적 실망을 안겼던 폭력사태와 최근 황우석 사태에 불교계가 대응하는 모습이 보면서 불교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부 불교계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도 스님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행과

포교가 양 수레바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님들도 각자 역량 맞게 놓여준·도심 청소년·군인·장년 등 지역과 계층별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중 종교의 동서구도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하다”며 “영남권에서 불교세가 강하고 호남권에서 기독교세가 강한 역사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정치의 동서구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종교계에서 연구해볼 만한 과제다”라고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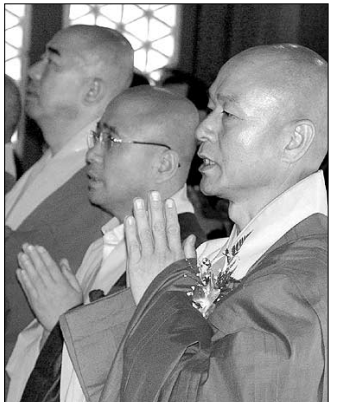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사단 광명회 부단장은 사회복지 등 불교가 사회에 접목시킬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로 각 종단의 포교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불교계는 한시바빠 현 위기상황을 돌파할 전략을 찾아야 한다.

“불신의 벽 허물고 발전 모색”

영배스님, 동국대 이사장 취임식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겠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영배 스님(사진 오른쪽)은 5월 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취임 고별식에서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도전과 시련은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배 스님은 또 “대학 사회가 속도 있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 또한 대학에게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학의 변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학교 구성원 간 많은 불신의 벽을 느꼈다”는 영배 스님은 “불신의 벽을 해소하면 통합은 어렵지 않다. 인기 중 대화와 소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이 외에도 “지난 3년

여 동안 법인은 갈등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사회는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별식에는 동국대 이사 영담 정념 해림 스님, 감사 상운 스님, 정각원장 진월 스님, 홍기상 동국대 총장, 원용선 총동창회장, 정성전 총학상회장과 주요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영배 스님의 취임사는 이메일과 동영상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됐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해외포교 ‘쟁걸음’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사진)의 해외포교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도영 스님은 5월 14~20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했다. 17일 현지에서 열린 대회에서 각 불교국가 대표와 스리랑카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분간 축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궁에서 마힌다 라자파르세 대통령으로부터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타운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18일 도영 스님은 캔디의 불치사를 방문해 아스기리아 종정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계종과 아스기리아 종단 나아가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도영 스님은 16일 조계종 복지타운 부지를 방문한 뒤 인근



베안고다 초등학교를 둘러보며 학교 발전 기금 10000루피를 전달했다. 도영 스님은 또 중국 내 한인불자의 현지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9-12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도영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관계자 7명은 9일 중국불교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뒤 만월사를 참배한다.

11일 오전에는 광제사에서 중국 내 한인불자 연합수계식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중국불교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중국 각 지역 사찰관계자들과 연합 간담회를 한다.

남동우 기자

해의 장학승 선발

조계종 교육원, 석사과정 대상

조계종 교육원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불기 2550년 해의 장학승을 선발한다.

해의 장학승은 해의 정구대학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조계종 비구·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장학금 신청서 △수행이력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보고서 등을 첨부해 6월 1일~7월 20일까지 교육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고서 공통주제는 ‘간화선의 국제화 방안’, ‘신규신정자는 ‘유학지역 불교현황과 이에 따른 한국불교 포교방안’을, 기 장학수혜자는 ‘유학 국가(지역)의 불교관련 정책과 포교방안’, ‘유학지역의 한국불교 현황과 포교방안’, ‘해의 유학승 육성 및 활용방안’, ‘불교학 관련 연구 분야 내의 자유주제’를 주제로 해도 된다.

전형방법은 서류 및 보고서 심사이며, 8월 8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02)2011-1800 남동우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권위’ 상향 조정

올부터 조계종 단독주최, 운영위원 위촉

옛 보리방송문화상의 권위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주관해온 “불교언론문화상”이 명실상부한 종합언론 문화상으로 변화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준영 위원장은 “신매체에 대한 이웃종교들의 준비가 주된 관건이다. 불교언론문화상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다”라며 “불교가 미래의 대안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매체를 준비하기 위해 불교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관 스님은 “결국은 포교의 문제이며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불교가 먼저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하며 “위원들이 많은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주면 중단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2월 6일 열린다.

조용수 기자

한마음선원 ‘최우수상’ 봉축유 연동축제 평가결과

한마음선원이 올해 연동축제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매년 연동축제에서 불자다운 화합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승과 장엄등을 아름답게 제작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해오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4월 3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연동축제에서 개인승, 연화단, 장엄등 등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화려한 거리 행사를 펼쳐 봉축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연동상에는 능인선원과 도선사, 정진상에는 진각종을 비롯한 4개 단체, 보현상에는 개운사를 비롯한 11개 단체 총 21개 단체가 수상했다.

원력상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5개 단체가, 개인별 시상에는 전영일 공방대표, 전영일씨 등 8명이 수상했다.

조용수 기자

미국·불국사 산중총회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각)가 6월 10일 연화당에서, 제11교구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타)가 6월 16일 무설전에서 신임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각각 연다.

산중총회는 승랍 5년 이상의 교구

소속 재직승, 1년을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비구, 교구 말사 주지 비구(나), 승랍 5년 이상으로 교구 선관료로부터 주민등록상 2년 이상 연화당에서, 제11교구 불국사 선관료위원회(위원장 성타)가 6월 16일 무설전에서 신임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각각 연다.

산중총회는 승랍 5년 이상의 교구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박해월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등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도문화와 중국문화의 만남에 핵심역할을 했던

현장법사와 ‘담마로드(실크로드) 공법의 길’ 21일

담마로드에 대한 이해와 순례는 동양인의 필수교양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는 현장법사 탄생 1406주년을 맞이하여, 인도문화와 동방문화가 오고 간 옛길을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佛子라면 인도 불교성지 순례를 마친 후, 가야하는 첫 번째 필수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뜻 깊은 길을 가보지 않고는 아침저녁 올리는 예불(七禮禮)의 여섯 번째 뜻이 우리 가슴에 고스란히 다 살아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번 순례에 동참하시어 여름휴가와 방학을 더욱 뜻 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실크로드여행사 대표 법승거사 이상원 합장배려

- 동참인원 : 21명(접수 순에 의함)
- 순례비용 : 350만원
- 계약기간 : 6월 15일(목)까지
- 계약금 : 50만원
- 문의 : 02)720-9600

*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여행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순례는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번 순례에는 송암스님이 지도법사로 동행하여 신앙과 불교사의 이해를 도와 줍니다.
 3. 실크로드의 불교적 이름은 담마로드입니다. 담마로드를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면 ‘전법의 길’ 이고,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 ‘구법의 길’ 이 됩니다.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일정내용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일정내용
제 1 일 7월 04일 (화)	인 천	전용차량	정결시간 02:30 17:40-19:40 22:40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 모인 불교승려, 인종문화, 불교의 서양 전파, 호법승, 호법승	제 12 일 7월 15일 (토)	카슈가르	전용차량	제 12 일 7월 15일 (토)	조식 후, 카슈가르 출발, 카라콜라 호수(3600m) 관광 및 피리코강을 따라 탁스쿠란 언덕, 석두상 답사 후, 호텔 투숙
제 2 일 7월 05일 (수)	서 중앙 사 남산	전용차량		현장법사와의 신라 불교법사들 모신 법상봉헌인 출토사, 화엄불교의 원형, 정토종교의 원형, 역사가 구미라지스님의 초상사, 불교의 도선대사가 주석한 정암사 등 중남산 부근의 불교 성지 순례 후, 서안으로 귀환, 당대의 무용 및 조각품과 고대적인 만두로 만찬 후, 호텔투숙	제 13 일 7월 16일 (목)	탁스쿠란	전용차량	제 13 일 7월 16일 (목)	탁스쿠란, 호수승, 및 서안에서 탁스쿠란 출발, 카라콜라 호수의 관광(4730m)을 넘어 피리코강을 따라 카라콜라 하이웨이(7000m)를 넘어 파키스탄의 천왕으로 길이라고 흔히 도착 후, 호텔투숙
제 3 일 7월 06일 (목)	서 안 천 수	전용차량 일차편		조식 후, 영수도 장이던 서안의 대저은사 대만일 순례 후, 세계에 기적의 벨마공경 및 천지승, 화장지 등 관광 후, 일차편으로 천수로 향할, 도착 후, 호텔투숙	제 14 일 7월 17일 (금)	훈 자 길 기트	전용차량	제 14 일 7월 17일 (금)	조식 후, 세계 최장수 순례자를 알리미스 후지왕국 답사 후, 도호리(7800m) 정상 관광 후, 왕오천축국전의 수발목인 길기트로 도착, 철자로 가르기 마에불상 등 순례 후, 호텔투숙
제 4 일 7월 07일 (금)	천 수 난 주	전용차량 일차편		진나라 개국지 천수를 출발, 전용버스편으로 보병단을 뺀 듯한 역사적 순례(1000년) 순례, 당시 천수로 귀환 후, 일차편으로 난주로 향할, 도착 후, 호텔투숙	제 15 일 7월 18일 (토)	길 기트 베 샴	전용차량	제 15 일 7월 18일 (토)	조식 후, 길기트 출발, 하미라-카라콜라-헤르투시 산맥의 인디스강-길기트강 삼각 분기점 답사 및 남가파르(7000m) 정상 관광, 철라스 고대 일각회 답사 후, 인디스 강을 따라 베샴 도착, 호텔투숙
제 5 일 7월 08일 (토)	난 주 돈 황	전용차량		조식 후, 전용버스편으로 유기현으로 이동, 유람선으로 황하를 따라 비버타운의 황고양관 사당 및 10만불을 뜻하는 병행사 석굴 순례 후, 일차편으로 난주 출발	제 16 일 7월 19일 (토)	베 샴 스 와트	전용차량	제 16 일 7월 19일 (토)	조식 후, 인디스 강을 따라 이마진 카라콜라 하이웨이 및 일라산 대왕의 황정림을 따라 베샴을 출발, 상글라 고개를 넘어 칸디의 불교적 변형지 스와트 도착 후, 호텔투숙
제 6 일 7월 09일 (토)	돈 황 천 황	전용버스		돈황(유웨이) 도착, 동황 이사의 사막지대를 통과하며 현장법사가 머물렀던 인사 건구 유굴, 돈황의 역사와 문화, 지리수문인 카발링 등 관광 후, 유람선으로 귀환, 도착 후, 호텔투숙	제 17 일 7월 20일 (토)	스 와트	전용차량	제 17 일 7월 20일 (토)	스와트 고고박물관, 일각르디는 한 강계 매매물, 사이투 사막지, 뷰트카라 사막지 순례 후, 호텔 투숙
제 7 일 7월 10일 (토)	돈 황	전용차량		1500여 년 동안 조성된 서안의 대왕의 동황의 마고굴 도착 후, 석굴내 불교(배리, 사리)의 고대 문물(가) 등이 된 법사사, 고대전통인 마로지 순례 후, 사막 속의 필라전과 동황일대 관광 후, 돈황으로 이동, 아간 일차편으로 푸르탄 향할	제 18 일 7월 21일 (토)	스 와트 페 사워르	전용차량	제 18 일 7월 21일 (토)	스와의터의 사막(사막)인 토티(사막)의 사막 순례 후, 페사워르에 도착, 수발은 불상인 있는 페사워르 박물관 순례 후, 호텔투숙
제 8 일 7월 11일 (토)	투르 판 우루무치	전용차량		투르판 도착 후, 손오공의 화상산 현장법사가 머문 고고고성, 카발링 철물 등 순례 후, 아간 일차편으로 카슈가르 향할, 돈황으로 이동, 아간 일차편으로 푸르탄 향할	제 19 일 7월 22일 (토)	페 사워르 타 호르 아울라비드	전용차량	제 19 일 7월 22일 (토)	스와트 출발, 탁스쿠란 이동, 탁스쿠란 박물관, 중앙의 사막지, 만월도로 대를, 사막지, 사막지 순례 후, 다라(사막)에 대왕 답사 후, 아울라비드도 이동 후, 호텔투숙
제 9 일 7월 12일 (토)	우루무치 쿠 차	전용차량		조식 후, 현상승 이동, 현상 도착 후, 철자의 유람선(승선) 관광 후, 당시 유람선으로 귀환, 유람선 박물관 등 순례 후, 우루무치 출발, 쿠차 도착 후, 호텔투숙	제 20 일 7월 23일 (토)	아울라비드 라 호르 방 록	전용차량	제 20 일 7월 23일 (토)	아울라비드 출발, 라호르 이동, 라호르 박물관, 라호르 성 관광 후, 공황으로 이동, 라호르 출발
제 10 일 7월 13일 (토)	쿠 차	일차		현상승의 오송지역의 역사가 구미라지스님의 고향인 쿠차, 카발링 철물 등 순례 후, 아간 일차편으로 카슈가르 향할	제 21 일 7월 24일 (토)	방 록 인 천	국제선	제 21 일 7월 24일 (토)	방록 도착 및 현상승 후, 방록 출발, 방록 관광 후, 현상승, 현상승
제 11 일 7월 14일 (토)	카슈가르	전용차량		카슈가르 도착 후, 카슈가르 시장, 이슬람교, 형비묘 등 관광 후, 호텔투숙					가 내 식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